

# 왕조 바뀌는 혼란기에 범등 지킨 傑僧의 범향



충주 청룡사지, 술솥에서 600년 침묵을 듣다

“어떤 것이 당문구(當門句)인가?”  
 섬돌로 올라가 대답하되,  
 “좌 우 중에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입문구(入門句)인가?”  
 문 안으로 들어가 대답하되,  
 “들어 온 후가 도리어 들어오지 아니한 때와 같습니다.”  
 “어떤 것이 문내구(門內句)인가?”  
 바로 대답하되,  
 “내외가 공하거늘 중간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1370년(공민왕 19년) 7월 양주 회암사에서는 공민왕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부선장(功步仙將)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공부선장이란 선종에서 승과(僧科)를 볼 때 선객을 모아 놓고 종사(宗師)가 격의도리를 물으면 그에 대해 답을 하는 일종의 답선 시험장이었습니다. 공부의 깊고 넓음을 테스트 하는 이 답선 법석의 종사는 그 유명한 나옹(懶翁 1320~1376) 스님이었습니다. 왕이 친히 왕립해 지켜보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종사의 질문에 활발하게 답을 해 올리는 선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왕이 밝지 못한 얼굴로 자리를 파하려 할 즈음에 늦게 도착한 한 선승이 나옹 스님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적적 받아 내는 장면입니다. 모처럼 베풀어진 법석에서 진리의 고갱이를 품은 눈 밝은 수행자를 발굴하지 못하는 그 썰렁한 분위기를 깨고 댓돌을 성큼 올라서면서 문 안으로 속 들어가면서 활구(活句)를 토해내는 선승을 향해 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산이 어찌 산언저리에서 중지됐는가?”  
 “높음을 만나면 곧 낮아지고 낮음을 만나면 곧 중지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어디에 이르러 개천이 되는가?” “대해(大海)의 물이 땅 밑으로 흘러 개천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어찌하여 쌀로 짓는 것인가?”  
 “모래나 돌을 삶아서야 어찌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문답은 반갯불입니다. 물음을 받으면, 찰나의 막힘도 없이 튀어 올라 묻는 이의 급소를 압도해야 합니다. 물은 이도 찰나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의 답에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면 호랑이 아가리에 얼굴을 들이미는 꼴이 되고 맙니다. 선문답은 진검승부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베느냐 네가 나를 베느냐. 이 한판 싸움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눈빛이나 기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고도의 수행을 통해 얻은 밝고 단단하고 환해 막



눈 덮힌 보각 국사 부도발 전경.

## 보각 국사 부도는 국보, 석등·탑비는 보물 고려말 4명의 왕 존경 받고 조선 태조도 국사로 모신 걸승 부도 대개는 왕명으로 설립... ‘종합예술’

힘이 없는 진리로서 그 칼을 삼는 것입니다.

임금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많은 선객들이 목구멍에 침을 꿀꺽 삼키는 가운데서 당대의 큰스님 나옹의 질문을 쓰여쓰여 베어 넘기는 스님은 환암 혼수(幻庵混修 1320~1392) 선사입니다. 속성은 조(趙)씨이고 지금의 경기도 남양주 진접면 내각리가 본향이지만 태어난 곳은 아버지의 근무지인 경북 예천 웅궁입니다. 부친이 웅궁에서 별세한 뒤 본향으로 돌아 왔는데 어려서 몸이 약하여 항상 병을 앓았습다. 그래서 모친이 점쟁이에게 물으니 “이 아이는 출가해 스님이 되면 영원히 병을 얻지 않고 건강해 마칩네 큰스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친은 열두 살의 아들에게 출가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너의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으므로 사슴의 어미가 새끼를 염려하는 것을 보고 감동해 사냥하는 것을 중지했더니라. 이는 네가 자인(慈仁)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도리를 이미 강보(襁褓)의 시절부터 나타내 보인 것이니 하물며 점쟁이의 말도 그와 같을이라.”

환암 선사는 공민왕을 비롯해 우왕과 창왕 그리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까지 4대의 왕으로부터 지극한 존경을 받은 당대의 걸승이었습니다. 조선 개국한 태조 이성계도 그의 높은 덕화를 흠모해 폐조(廢朝)의 국사(國師)라 여기지 않고 그대로 국

사의 지위를 유지해 주길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두 나라에 모두 다섯 왕의 존경을 받은 큰스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왕조가 붕괴되고 군력(軍力)에 의해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는 혼란한 시기에 승려로서 국왕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왕이 바뀌 때마다, 또 왕조가 바뀌었을 때 환암 선사는 진심으로 국사의 직인(職印)을 내놓으려 했지만 왕의 만류로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나 산야를 달리는 짐승들이 밤이 되면 깃을 잡고 몸을 웅크려 잘 곳을 찾듯, 세파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혼란한 잠을 청할 한 칸 공간이 필요합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로, 속진(俗塵)을 벗어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을 토굴 하나가 간절할 때가 있습니다.

환암 선사가 노련한 것을 접었던 곳은 당시의 수도 개성으로부터 제법 먼 곳이었습니다. 충북 충주의 청룡사 서쪽 기슭에 손수 암자를 짓고 ‘연회암(宴會庵)’이란 이름을 달아 붙인 것입니다. 당초 벌일 국사가 개산한 사찰산문으로 출가했던 환암 선사는 젊은 시절 전국의 큰 절들을 두루 편력하며 수행하여 ‘산문의 2인자’란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왕들의 부름을 받으면 간절하게 사양을 하고, 마지못해 궁궐로 갈 때는 정성을 다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니 그 도행을 존경하는 사람은 왕에서 백성에게 이

르기까지 한결 같았던 것입니다.

연회암, 암자 이름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선사는 왜 하필 어두운 밤, 그림자를 뜻하는 회(晦)자를 썼을까 궁금해집니다. 이미 절망으로 치닫는 시절인연을 선사는 일찌감치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연회암이 있었다는 청룡사는 지금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충주시 소태면 오량리 술솥에는 텅 빈 절터의 허허로움을 위로해 주는 환암선사의 부도(국보 제197호)와 탑비(보물 제658호) 그리고 석등(보물 제656호)이 가지런히 서서 600년이 넘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발이 흠날리는 겨울날 오후에 달려간 환암 선사 부도발. 석등과 부도 그리고 갖도 쓰지 않은 탑비가 설을 앞두고 내린 폭설을 머리에 이고 적막 속에 또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그렇게 600년이 지나는 동안 청룡사가 흥해 수많은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는 흥복의 시절을 지켜보기도 했고 악연(惡緣)을 피하지 못하고 불길에 휩싸여 잿더미로 변하는 장면도 목도했습다. 그렇게 묵묵히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석등도 부도와 탑비도 조금씩 바람이 돼 가는 동안 사람의 풍속과 기술은 급박하게 변하여 무인 카메라가 높다랗게 매달려 유물들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환암 선사는 조선이 건국되던 바로 그 해 1392년 9월 18일에 “나는 오늘 밤에 떠날 것”이라며 국사의 도장을 봉인해 하고 임종계를 남긴 다음 단정하게 앉아 원적에 들었습니다. 고려의 네 왕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선사의 원적을 조선 태조도 몹시 애도했습니다. 태조는 보각(普覺)이라는 시호와 정혜원웅(定慧圓融)이라는 탑호를 내리고 신하를 선발해 보내어 장례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또 다음해에 청룡사의 북쪽 봉우리에 부도를 세울 것을 명했으며 권근(權近)에게 비문을 찬하게 했습니다. 조선이 창업하던 당해 가을에 입적한 고려의 국사에 대한 태

조의 극진한 예우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환암 선사의 부도는 조선의 하늘이 열리고 처음으로 조성된 부도와 탑비입니다. 장엄을 이룬 왕의 지극한 관심이 있었음은 아름답지만, 탑비는 전시에 비해 화려한 귀부나 섬세한 조각의 이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저 4각의 지대석에 위쪽 모서리가 접힌 빛돌을 엮었을 뿐 특별한 공력을 들인 흔적은 없습니다. 부도의 조각은 담대하면서도 활달한 수법이 오히려 지나친 의욕을 어찌할 수 없었던지 전체적으로 살이 붙은 느낌입니다.

부도는 대개 왕명에 의해 세워집니다. 9세기 중엽 이후 구산선문을 열어 선종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선사들이나 고려조의 큰스님들은 대부분 왕의 존경과 귀의를 받았던 시대의 사표였습니다. 그런 만큼 입적 이후 왕은 시호와 탑호를 내리고 관원을 보내 장례를 관장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고려초기부터 중앙 기구로 자리 잡았던 승록사(僧錄司)는 바로 왕사나 국사의 책봉과 의식에 관한 주관, 승적의 정리 등 불교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고승의 입적 후 장례의 주관과 부도와 탑비 건립도 승록사에서 왕명에 따라 주관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 시대에도 큰스님들의 입적을 당한 왕은 조문사절단을 보내고 시호와 탑호를 내렸으며 부도와 탑비 건립을 후원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부도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입니다. 당대의 명공(名工)이 선배와 지척과 조탑을 담당해 시대를 대표하는 조형예술을 남겼습니다. 또 왕의 지목에 의해 문도들이 정려해 준 행장을 토대로 비문을 찬한 사람은 그 시대에 이름 높은 문장가였고 글씨를 쓰는 이도 명필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며 빛돌에 새김질을 한 사람 역시 최고의 서각가였을 겁니다. 그렇게 한 수행자의 생애와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예술로 승화해 후세에 전해집니다. 운수잡자가 울무염주를 목에 걸고 천하를 떠돌다가 어느 산자락에서 입적하면 육신은 불과 물 그리고 바람과 흙으로 돌아가고 목에 걸었던 울무가 짙을 띄워 다시 열매를 맺듯 부도 또한 한 수행자의 생애를 전하는 증언의 기표입니다.

기울어 가는 왕조, 흐려진 불명의 시대를 가슴 쓸면서 지켜낸 걸출한 수행자의 한 생애는 이렇게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환암 선사의 부도와 탑비를 쓰다듬다가 돌아오는 길에 석종형의 부도 한 기와 석등의 부재들을 찬찬히 들여다봅니다. 거기서도 한 수행자의 숨결이 사르르사르르 눈 쌓이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서리조, 이자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선종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단체협의회, 둘째책.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재원. <잊혀진 가람탐험> 정지현, 역사아문. 등.

## 성불화 카필라 신발

신발공학이 만든 가장 편안한 신발 성불화 인기!



▲성불화 넘어공용

불자님 평상복에도 세련! 스님 승복 색상에 맞춰 골라!

국내 기능성신발 메이커인 삼양통상에서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신발 성불화Ⅱ “카필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어 성불화Ⅰ에 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불화 “카필라” 브랜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왕세 자를한 인도의 고대국가 이름이며 과학적인 설계로 신발의 무게를 획기적으로 가볍게 하고,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장시간 보행에도 피로감을 감소하게 제작된 기능성 신발이다.

신발내부에는 신소재를 사용해 겨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찬공기를 차단해 매우 따뜻하고 여름에는 발땀까지 흡수해 외부로 방출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신고, 벗기 편하게 원터치 신발끈으로 되어

최고급 천연방수 “뉴빅” 사용

있다. 디자인면에서는 불자님들의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며, 스님께서는 승복색상에 맞추어 품격있게 제작하고, 최고급 천연방수 가죽 뉴빅을 사용해 세련되어 종교를 떠나 타종교인들도 신장하고 있다. 또한 “카필라”를 신고 만행할때 악귀와 잡귀를 미러쫓고 좋은 인연과 귀인을 만나게 만트라를 넣은 것이 독특하다. 성불화 “카필라”는 넘어 공용으로 225mm부터 280mm까지 사이즈별로 제작되어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신을 수 있다. 가격 88,000원

레저, 등산엔 아이젠 트래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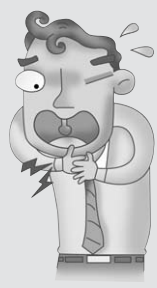
• 아이젠  
 • 특수아이젠 부츠로 미끄럼 방지  
 • 수염은 친화 테크를 거쳐 개발된 신기술 등산화  
 • 인건후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눈솔림 소재의 밑창  
 • 가격 88,000원

문의: 080-775-7575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 목·기관지가 불편할때

도라지 진액 상쾌 출시!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환절기에는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앞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나 본인 모두 약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만약 목, 기관지로 고생하는 사람이라면 토종도라지를 눈여겨 보자. 도라지에는 탄수화물을 비롯한 칼슘, 철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라시코틴이란 성분이 목보호에도 도움을 주어 예로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고려한방제약에서는 과학적인 연구토대로 이 사실을 알게되어 목, 기관지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여 토종도라지에 더욱 좋은 터력을 추가하여 새로운 신제품 상쾌를 출시하였다. 고농축된 토종도라지 상쾌진액은 티스푼만 스푼 정도를 그대로 먹거나 물에 타서 1일 2~3회 간편하게 음용하면 된다. 가격은 종전 판매가 130,000원에서 100원만 99,000원에 특별할인하여 공급하고 있다.



내용량 : 110g×3병  
 (주)고려한방제약  
 문의 1566-1940  
 농협 483-02-192611 전정호

##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찰맛! 「천하무적」 옷가네 토종참옷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검사

옷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옷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옷이 좋은 줄은 알지만 옷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옷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 출연기관) 성기승 박사 의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서 안전성 검사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 내용량 : 110g(90ml × 60도) 2개 합본  
 • 1병(1.5g)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 언론보도자료

- “인생방은 만큼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옷 안되는 찰맛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찰맛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성고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옷 잘 걱정 없는 찰맛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찰맛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옷 안되는 찰맛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찰맛 부작용 걱정만 내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옷, 안전성 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찰맛의 이익이 되는 옷 건강법 실천
  - ▶2006.8 20 KBS 삼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옷 찰맛
  - ▶2006.10.31 KBS 무한지대류 - 찰맛

### 구입엔 꼭 확인을...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 옷가네 찰맛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